

‘정치 파업’ 장기화... 국민 비판 수용

여야 10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 가속법 개정·원구성 등 난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8일 극적인 국회 개원 협상 타결은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요구는 쏟아졌지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여야가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0일 등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국회 정상화는 18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40여 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의 합의 결과를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밟을 예정이지만 이미 등원 문제는 원내대표단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에서 10일 등원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된 양당의 원내대표단 협상은 두 시간 이상 계속되며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가속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하면서 ‘국익을 고려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개정을 주장, 평행선을 달렸으나 자유선진당의 거중 조정으로 ‘추가협상 내용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연합뉴스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내대표단은 또 ▲개원 후 본회의에서 나올 긴급현안질의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가속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공기업 대책 특위, 고유가·고물가 민생안정 특위,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위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5개 국회 특별위원회를 발족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상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합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정상화를 합의했으나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인 가속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 간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개정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의석 규모로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국민 여론에 따라 또다시 정회 투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쇠고기 국정조사의 조사범위와 기간, 대상 등을 놓고도 난항이 예상되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전망도 ‘산너머 산’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짚끔 개각’에 정국 또 먹구름?

野 반발 이어 與도 “위기의식 없다” 쓴소리 靑 사태수습 진력...민심악화 이어질까 촉각

쇠고기 정국 극복을 위한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기대했던 여론과 달리 지난 7일 단행된 개각이 핵심 경제팀이 빠진 채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장관 교체에 그치면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과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국정혼란을 무마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했지만 “청와대가 위기의식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또다시 시 민심과의 소통에서 어수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등 야권이 청와대의 소극 개각을 “국민 기만소자지 면피용 개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맹항규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예방한 자리에서 “소극 개각으로 어떻게 민생 안정을 기할 수 있단 말이나”고 싸늘한 태도를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8일 당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각은 감동이 아닌 ‘감질’ 개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정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번 소극 개각이 민심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

양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현 경제팀은 7% 경제성장을 위한 단기부양책에 과도하게 집착,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 증대를 꾀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급등으로 나타나 국민고통이 심화됐다”고 이번 개각을 비판했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지 청와대는 개각 인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태수습에 진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기 내각에 ‘새로운 자세’를 공개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장관들은 ‘유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 임명됐다는 기본으로 국정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에게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과거와 다른 책임감으로 일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란

한나라, 하향 조정 검토... 민주 ‘편 가르기’ 의혹 제기

한나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으나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소속된 정당으로 돼 있는 원내교섭단체 등록요건을 자당의 국회의원을 배정시킨 국회

상임위원회 수로 바꾸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에 1석씩 보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해 원내교섭단체 등록요건 개정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자 18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못 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위헌설관식으로 어떤 정당을 위해 추진하면 성사가 잘 안 됐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현행 20석의 구성요건을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보수대연합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선진당과 친박 연대 등을 끌어들이 의회 독재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친박 복당 ‘속전속결’

10일 최고위원회서 결론...‘서청원 변수’ 남아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체제’ 출범 이후 당내 최대 현안인 친박 복당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별도의 최고위원 회동을 통해 친박 복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복당과 관련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복당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일괄복당’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검찰에 기소된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 시점을 놓고 ‘선(先) 복당, 후(後) 해결’과 ‘선 해결, 후 복당’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엄연히 당헌당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는 만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체 논쟁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한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은 ‘서청원 변수’에 대한 점점찾기가 쉽지 않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관청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과 강의!

곽내영교육학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대특강

대표전화 529-0090

개강 7월 4일

www.naeyoung.com

전공국어 최병해 교수팀 개강 7월 5일

강좌명 및 반구성	개강	특징
국어교육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5일(토) 9주 완성 (주간)	국어교육학 기본 교재(상/중/하)로 진행 중 - 고등국어(하/중/상) 교재까지 진행
단반: 마운트물 교수	7월 7일(일)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문과: 국어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7일(일) 10주 완성 (영성)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단반: 최병해 교수	7월 8일(월)	2차 논술형 문제 유형 파악 중심 수업
문제풀이 기본반	7월 6일(일) 9주 완성 (영성)	영역별 기본 문제풀이집으로 진행
1차 선더링 시험 대비	7월 7일(월)	영역별 기출 문제풀이집으로 진행
2차 논술형 시험 대비	7월 8일(월)	영역별 기출 문제풀이집으로 진행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고의 합격률만 자랑하는

임마선 유아교육과정

1차 대비 영역별 객관식 문제풀이반

개강 6월 18일, 22일 강의시간 09:30-17:30

[주차별 강의 내용]

1주. 유아교육, 유아교사, 유아	7주. 언어 발달과 언어 성숙
2주. 교육과정론과 출판	8주. 인지 발달과 과학 교육
3주. 신체발달과 건강 생활	9주. 수학 교육
4주. 사회성발달 사회 생활	10주. 부모 교육, 교사론
5주. 사회 생활 II	11주. 교육과정 운영 I
6주. 예술의 발달과 표현 생활	12주. 교육과정 운영 II

※ 2차 논술형 주관식 문제반 추후 개설예정

=금번 9급시험에 본 학원 수강자 여러분들의 많은 합격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급 공무원 원 대비

행정, 교정, 관공,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훈, 소방, 전산, 특검, 특검, 건축, 보건

※ 본 학원 강사진은 오랜 강의경력을 갖춘 전국최강의 프로교수팀임을 자부합니다 ※

금번 중·하반기 시험

7월 15일(주·아침모임)

합격자총회 회원모집

6개월 (총)회원 80만원

1년 (총)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www.mdgosl.co.kr

222-4560

새종행정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한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1일 주야 문제풀이특강

고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발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중개사들이 추천한 1등학원

입금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www.lankor.com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 가입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7)에 의해 고용사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의 80% 환급
▶ 시험: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 (062) 236-2468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개강 7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기본서 공인중개사 프린트 시험지

기초서 내용을 핵심요약하여 오는 배웠던 단원에서 10문제 풀이를 통해 정확히 핵심이론 정리를 통한 최종점검

9~10월은 실전(동형)모의고사 최종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최종문제풀이 주택관리사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현재 접수중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요망]

44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본원출신 전국수석

www.lankor.com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합동점 ☎ 971-0002 (구백마초등학교 앞 광주은행 4F)

원서접수: 2008.8.18 ~ 8.27 (원서접수대행)